

연구논문

외방인이 보는 한국인

《모닝캄》에서 관찰되는 한국인의 표상

최원재

동국대학교 한류융합학술원 전임연구원, 교육학 전공

jacknroll49@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금의 한국인 표상이 어떻게 정립되었는가를 찾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외방인의 관점에서 찾아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세기 초에 영국 성공회 선교사가 발간한 《모닝캄》의 기록을 살폈다. 지금의 한류가 외국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한국인의 표상이 구성되듯이 100여 년 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외방인에 의한 한국인 표상 구성 양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선 현대 한국인의 표상을 한국인과 외방의 관점에서 각각 조사한 후 《모닝캄》 200호부터 229호까지의 연구 범위 내 한국인을 묘사하는 부분을 살폈다. 연구 결과 한국인에 관한 외방인의 표상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한국인의 교육열, 가족주의, 관계주의, 집단주의 등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이는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표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한국인, 표상, 모닝캄, 성공회, 한류

투고일 2026. 4. 5. 심사일 2026. 8. 14. 게재 확정일 2026. 8. 27.

Research Paper

Koreans as Viewed by Foreigners: Representations of Koreans Observed in 《Morning Calm》

Choi, Wonjae

Research Associate, Hallyu Convergence Academy, Dongguk University
jacknroll49@gmail.co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current representation of Koreans was established, to by addressing the question, “What kind of person is a Korean?” from the perspective of a foreigner.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records in “Morning Calm,” which is a publication by an Anglican missionary in the early 20th century. Just as the current Korean Wave is formed by foreigners and the representation of Koreans is constructed, a similar pattern of the representation of Koreans being constructed by foreigners was present approximately 100 years ago.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representation of modern Koreans from both Korean and foreign perspectives, and then examined the sections describing Koreans within the scope of the study, spanning issues 200 through 229 of “Morning Calm”. Factors such as Korean educational zeal, familism, relationality, and collectivism exerted a substantial influence on shaping the representational structure of Koreans by foreigners, and these influences continue to shape the representation of Koreans to this day.

Keywords: Korean, representation, Morning Calm, Anglican church, Korean wave

Received April 5, 2026 Reviewed August 14, 2026 Accepted August 27, 2027

I. 머리말

한류가 흥행하고 있다. 어떤 이는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 가수가 세계적인 셀럽(celebrity)이 되고, 한국의 드라마가 전 지구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팬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한류 연구자는 특히 한국인에 대해 부쩍 궁금해한다. 한국인의 어떤 면이 이런 독자적인 장르의 팝을 만들 수 있었는지, 영상미가 뛰어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흥미로워하면서 따라 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오늘날 한류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니라 한국인의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창역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가 크게 성공한 이후 한국인에 대한 전 지구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을 때 이를 애써 한국인이 한국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나선 이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었다. 흔히 말하는 ‘국까’ 현상이다. 국까지는 ‘나라 까기’라는 뜻으로 한국 혐오를 의미한다.

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이 ‘국뽕’이다. 누군가 한국과 한국인의 장점을 말할 때 서슴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이 국뽕이다. 한국인과 한국의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인의 태도를 다른 한국인이 폄하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코리아니즘(Koreanism)’, ‘코리아니스(Koreanness)’, ‘한국성(韓國性)’ 등의 개념에 내재한 한국적 요소로 한국인이 자화자찬함을 다른 한국인이 조롱하듯 표현하는 말인데, 최근 한류 흥행의 주요 비결로 이러한 한국적 요소가 주효했다는 주장에 여지없이 ‘국뽕’ 담론이 소환되곤 한다.¹ 국뽕-국까 담론은 어떻게 보면 객관화에 기초한 비평을 요구하는 외침일 수 있다. 객관성의 부재에서 오는 국뽕에 취함(drunkenness)과 국가의 공허함이 주는 피로감은 한류의 동력 약화와 한국 내 세대 간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을 오해할 여지를 줄 수도 있다.

‘과연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즉, 한국인의 표상에 관한 대답은 정답이 없

1 이현중·박지민, 「한류의 세계적 부상과 미래 지속가능성: ‘국뽕’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콘텐츠와 산업』 7(2025), 425~431쪽.

다. 한국인 한 명, 한 명을 봐도 다 다르고, 개인의 특성인지 전체 한국인의 특징인지에 관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 주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국가와 국뽕이라는 개념도 분명 한국인의 성격이자 심리 및 정서다. 이런 특징이 모여 한국인에 대한 표상을 만든다. 표상은 대상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포괄적인 내적 형상을 뜻한다. 감각적으로 눈앞에 그려지는 직관적인 심상인 이미지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이런 표상이 어디에서 기인해서 어떻게 수용됐는지 찾아보는 것은 단순히 흥미를 넘어 한국인 정체성의 근원을 찾는 일이다. 이를 확인하다 보면 한국의 표상이 명확해지므로 이로 인해 혹 있을지 모르는 부정적 면을 개선할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인의 생물학적 특성을 우리가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변하지 말아야 하는 한국인의 표상과 바꿔야 하는 표상이 나뉘어 보인다면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나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26년 3월 언론에서 보도한 동남아시아 한류 팬덤과 한국의 팬덤이 충돌한 ‘시블링 이슈’를 보면 한국인의 표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과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외부에 어떻게 보이고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와 심리, 성격을 파악하는 길이요,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한국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생물학적·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취향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우리의 뿌리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지정학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구성된 한국인만의 특징도 있을 것이다. 한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가와 국뽕의 대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외부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심하게 느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방(外邦)에서 바라보았던 한국인은 어떠했는지 과거

-
- 2 ‘시블링(SEAblings)’ 이슈는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네티즌들이 한국의 일부 차별적 행동에 반발하며 결성한 온라인 연대와 이에 따른 반한(反韓) 감정 및 불매운동 조짐을 의미한다. 동남아 K팝 팬덤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무례함과 차별을 규탄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규모 혐오 설전을 벌이고 있다.

외방인의 기록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외방’은 문화적이며 심리적인 외부의 공간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단일 국가별이 아닌 우리 영토 외부권역에서 일어났음을 이해하고 한 나라를 가리키는 정치적인 용어 ‘외국’이 아닌 외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의 위상이 조금씩 커지면서 한국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도 출판되었고,³ 2017년과 2018년에 시작한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대한외국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이후 SNS에는 한국인의 특징을 논하는 외국 콘텐츠가 눈에 띄게 늘었다.⁴ 현대 외방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표상은 약 150년 전 한국 개화기에 외방인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과 5G, 초고속 인터넷 환경 등의 첨단 기술과 생활 방식에서 발생한 현대의 한국 문화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강한 성실함과 ‘빨리빨리’ 문화, 높은 교육열, 눈치 문화, 공동체 의식 등으로 수렴되는 한국인의 표상이다. 시대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외방인의 한국인에 관한 표상은 언제부터 형성된 것일까?

위의 질문은 현대 한국인 연구에 있어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다. 국내외에서 개인 연구자는 물론 여러 연구 기관이 이를 주제로 활발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7년 역사자료총서 17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을 발간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에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이라는 섹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⁵ 《동아일보》는 2011년 ‘구한말 조선을 바라본 긍정의 눈’이라는 연재 기사를 편성했다.⁶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하여 공개했다.⁷

3 Songhyon Jang & Thomas L. Coyner, 『Doing Business in Korea: an expanded guide』(서울: 서울셀렉션, 2010); 채서일, 『Doing Business with Koreans』(고양: 옥당, 2012).

4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징(<https://blog.naver.com/empl/222545730034>).

5 근현대사 아카이브(<https://archive.much.go.kr/index.do>).

6 「구한말 조선을 바라본 ‘긍정의 눈’»,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eries/70070000000937>).

7 「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쓴 조선의 「기행 편지」 복원하여 최초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next/newnews/pressDetail.do?board_seq=102192).

한국인의 표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인식과 시각 속에 나타난 이미지로 본 한국과 한국인’,⁸ ‘문학 속의 한국 대탐구-외국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한국·한국인’,⁹ 등의 학술적 접근도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개관해 보면 건양대 김현숙 연구팀(2016)은 근대 전환기 알렌 문서를 정리·해제 및 DB화했고,¹⁰ 윤현숙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미 국무부 재외 공관 문서(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라는 컬렉션에 소장된 언더우드 편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고찰했다. 최원재는 《모닝캄》1호에서부터 42호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DB화하면서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으로 제작했고 그 속에 보이는 대한성공회의 선교 정책을 도출했다.¹¹ 이재근은 1895년부터 1897년까지 서울에서 머물며 가족에게 보낸 약 100통의 편지를 중심으로 미국 남장로교 여성 선교사 로티 W. 위더스폰 벨(Lottie W. Bell)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초기 인상을 분석하였다.¹² 이들은 주로 서신이나 일기 등의 기록에 남긴 외방인들의 심정과 이를 묘사하는 표현 등에 주목하여 당시 외방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가진 인상을 해제하였다. 조강석은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에 조선을 방문한 세 명의 외국인 작가가 남긴 방문기를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의 집적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외방인의 표상 형성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한 근현대 외방인의 기록과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개화기 당시의 한국과 한국인은 미개한 문화에서 허우적거리는 비문명적 존재로 그려졌다. 그리고 이때 외방인의 기록은 이러한 미개 민족에게 서양의 우수한 인물과 단체가 찾아와 개화시키고 드디어 문명권에 편입시켰

8 2007년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대회.

9 2014년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10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http://waks.aks.ac.kr/rsh/dir/rwork_view.aspx?rshID=AKS-2016-KFR-1230009).

11 최원재, 「디지털 데이터 시대의 연구·교육 방안: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모닝캄》 시맨틱 데이터 큐레이션」, 『한국학논집』 88(2022).

12 이재근, 「미국 남장로회 여성 선교사 로티 벨(Lottie W. Bell)의 한국 및 한국인 초기 인식: 1895-1897년 선교 편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13(2025), 259-283쪽.

다는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강하게 표방했다. 김학준의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과 강석진의 『조선 근대 문명화를 이끈 선교사들』을 보면 이러한 외방인의 시각이 농후하게 발견된다. 급기야 육영수는 『근대한국학의 뿌리와 갈래』를 통해 19세기 후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학이 ‘발명’되었으며, 이것이 근대 한국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새로운 계보학적 관점을 제시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측이 군정 장교들에게 배부한 한국에 관한 책들 역시 주로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어니스트 피셔(J. Ernest Fisher),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등의 저서이다.¹³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외방인에 의한 근현대 한국인 표상 형성이 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개항기를 전후하여 서양인 선교사, 외교관, 여행가들의 기록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이들의 기록은 한국을 외부의 시선에서 규정하며 근대적인 ‘한국인’ 표상을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때의 한국인 표상은 양립한다. 외방인 누구는 한국인을 더럽고 미개한 민족이라고 했고, 또 다른 외방인은 한국인을 동양의 유대인에 비유하며 민족적 우수성을 칭찬했다. 이른바 ‘한유동조론(韓猶同祖論)’이다. 에른스트 야코프 오페르트(Ernst Jakob Oppert)는 조선인이 일본인, 중국인에 비해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편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다. ‘일유동조론(日古同祖論)’을 주장한 니컬러스 매클라우드(Nicholas McLeod)도 한유동조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S. M. 비노커(S. M. Vinocour)와 호머 헐버트 역시 “한국인은 극동의 유대인이다.”라고 주장했다.¹⁴

1904년에 조선에 입국한 잭 런던(Jack London)과 아손 그랩스트(W. A:son Grebst)의 시각은 이러한 양립성의 대표적인 사례다. 잭 런던은 그의 저서 《La Corée en feu》¹⁵에서 조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고, 조선 사회를 원시 사회에 비유했다. 반면 아손 그랩스트는 조선인의 유쾌함과 평등한 성품에 관심을 갖고

13 안종철,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조지 M. 맥클을 중심으로」, 이태진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편), 『세계 속의 한국사』(파주: 태학사), 2009.

14 「한국인과 유대인」, 《중앙일보》, 1971년 2월 18일.

15 잭 런던(저), 윤미기(역),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파주: 한울출판사, 2011).

그의 책 《I Korea》¹⁶에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배움이 빠르고 신뢰가 간다”라고 평했다. 경쟁이 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으로 파견된 선교사는 한국인 표상 정립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데, 한 사람의 선교사에게서 한국인을 대하는 양립적 시선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언젠가 이 나라(조선)가 외국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큰 해악이 될 것이다. 자신들의 평화를 잃을 것이며 평온함과 단순한 정신, 한마디로 삶 전체를 잃게 될 것이다.

위의 내용은 가톨릭 선교사 다블뤼(Marie Nicolas Antoine Daveluy) 주교의 기록이다.¹⁷ 프랑스인의 눈에 비친 조선 사회는 탐욕스럽고, 경박하고, 시끄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을 유럽보다도 우월한 공동체 정신이 존재하는 곳으로 보기도 하면서 조선 나름의 질서가 있던 곳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이때의 선교사는 그 직분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한 성품을 지녔다기보다는 당시 ‘서양’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문명화된 시각에서 비문명화된 곳을 내려보았던 권력자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단, 조선인과 함께 하는 체류 기간이 길었고, 직분의 성격상 대하는 데에 있어 동역자로서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양립적인 모습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선교사의 두 가지 시선은 외방인이 갖는 한국인 표상 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 선교사의 한국인 표상에 관한 평가는 류대영과 조현범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⁸ 그리고 프레데릭 볼레스텍스(Frédéric Boulesteix)의 연구에서는 프랑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프

16 1986년 출판 당시의 한국어 제목은 『코레아 코레아』였으며, 이후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로 재출판되었다.

17 조현범, 『문명과 야만: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서울: 책세상, 2002). 다블뤼 주교는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사이며 천주교 조선교구의 제5대 교구장이다.

18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1885~1910』(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서울: 푸른역사, 2009);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랑스라는 외방이 어떻게 한국을 이미지화했고, 한국인의 표상이 외방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통시적으로 밝혔다.¹⁹⁾

그러므로 당시의 한국인 표상이 오리엔탈리즘의 기치 아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있는 그대로 기록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따져봐야 한다. 이미 못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 표상에 관해 결론지은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에게 대한 기록으로 들어가 외방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현장에서 관찰하듯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을 차분하게 관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익히 알려진 현대 한국인의 표상을 한국인 관점과 외방인 관점에서 각각 살핀다.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표상 연구는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인 정서 연구, 심리 연구 등 문헌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더불어 직접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로 실증성도 갖추었다. 이에 반해 한국인 연구자가 외방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표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외방인의 한국인 표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인용한 한국인 관점의 한국인 표상 연구와 외방인 관점의 한국인 표상 연구 사이에 적지 않은 시차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인과 외방인이 공통으로 떠올리는 한국인의 표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 기관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이미지 분석 결과에 있으나²⁰⁾ 이를 통해 한국인의 표상을 연구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외방인의 한국인 표상 연구에 대한 근거로 외방인 연구자의 한국인 연구에 관한 문헌과 함께 실증 자료로서 외방인이 쓴 뉴스 레터, 에세이를 직접 인용한다.

선행 연구에서 한국인과 외방인이 갖는 한국인 표상의 공통점을 도출한 후 이

19 프레데릭 볼레스텍스(저), 이향·김정연(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서울: 청년사, 2001).

20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문화체육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해외 한류 실태조사.

러한 한국인의 표상이 갖는 역사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영국 성공회의 선교지 《모닝칼(The Morning Calm)》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영국인들이 150여 년 전 한국인을 보고 《모닝칼》에 묘사한 바를 찾아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인 표상과 대조한다. 이를 통해 외방인이 바라본 한국인에 대한 시선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 성공회가 발행한 기록만으로 한국인의 표상을 단정하는 것은 심한 비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본 연구의 취지인 객관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인을 바라본 외방인 관점의 역사 탐구를 이어가는 지난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²¹ 방법론에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시대의 궤적 속에서 한국인 표상을 전언하지 않고 실제 기록 속의 장면을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연구 의의가 있다.

II. 현대 한국인의 표상

1. 현대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

한국인 표상에 관한 연구는 생물학, 의학 분야, 성격 및 심리와 정서에 연관한 분야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생물인류학적 연구 결과만을 고려해 본다면 신석기시대 이후 한국인은 북방계(70~60%)와 남방계(40~30%)의 유전자가 혼합되어 한반도에서 거주했다.²² 또한, 의학자, 체질 인류학자, 집단 유전학자도 혈통적 한민족 개념을 이용하여 한민족의 생물학적 실체를 부여하는 데 기여했다.²³ 이러한 의학·생물학적 특성도 한국인의 표상을 이룬다.

21 최원재, 앞의 논문(2022). 이전 연구는 《모닝칼》의 전반부인 1호에서 42호까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번에는 후반부인 200호에서 229호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22 방민규, 「생물인류학 자료로 본 한국인 기원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9(2018), 1211~1226쪽.

23 현재환, 「“한민족의 뿌리”를 말하는 의사들: 의학 유전학과 한국인 기원론, 1975-1987」, 『의사학』 28(2019), 551~589쪽.

한국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성격과 정서는 겉모습 못지 않게 표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교육심리학자 윤태림은 1964년 그의 저서를 통해 ‘한국인의 성격’을 분석할 때 유교를 위시한 한국인의 전통과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과 더불어, 정신분석학의 논리 중 정신성적 발달단계의 단선론적 구도를 통해 한국인이 총체적으로 ‘지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²⁴ 그에 따르면 한국인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 이규태는 열등의식, 서열의식, 집단 의식, 상향의식 등이 한국인을 설명하는 특징이라고 했고,²⁵ 이부영은 한국인의 윤리적 정립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논의했는데, 그는 한국인의 부정적 성격 특성이 청소년기 심리와 역사적 전통에 연관되어 형성되었음을 탐구했다.²⁶ 최상진의 연구는 동북아 유교문화권의 인간관계 윤리와 한국인의 심정을 탐구하며, 심정이 개인의 정서적 발달과 대인관계의 충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 준다.²⁷ 조금호는 한국과 더불어 동아시아 전체에 연계성, 조화성, 자기 억제, 가변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배경에는 유학 사상이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²⁸ 최상진은 또한 문화심리학 관점에서 ‘한국인의 심층 심리’에 대한 연구로 심정(心情), 정(情), 한(恨)과 자기(自己)개념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한국인의 사회심리’에서는 우리성, 체면, 눈치, 핑계, 의례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²⁹

차재호와 정지원은 한국인의 성격과 의식에서 수집한 1979년 질문지 자료 중에서 집합주의-개인주의와 관련한 32개 문항에 응답한 60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1980년경 한국인들은 집합체 수용이라는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집합주의적인 경향을 띠었지만, 내집단 편애나 부모-자식 간 의존 관계에 있어서는

-
- 24 김대현, 「교육심리학자 윤태림의 ‘한국인의 성격’ 논의와 미국 정신분석학의 명암」, 『한국사연구』 210(2025), 457~495쪽.
- 25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이 땅의 토박이!』(서울: 신원문화사, 1983).
- 26 이부영, 「현대 한국인의 성격」, 『정신문화』 15(1982), 75~86쪽.
- 27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心情心理):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개념」, 『성공논총』 31(2000), 479~514쪽.
- 28 조금호,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007), 21~53쪽.
- 29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서울: 학지사, 2011).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였음을 밝혔다.³⁰ 이근후는 대학생집단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응답자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 첫째, 성격이나 행동이 급하다. 둘째, 감정적이고 정이 많다. 셋째, 정확성이 부족하다. 넷째, 남의 눈치를 본다. 다섯째, 가족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강하다. 여섯째, 허세가 심하다. 일곱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여덟째, 변화를 싫어한다. 아홉째, 내성적이다. 열째, 권위주의가 강하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가운데 가장 주요한 특징은 감정적이고, 정적이고, 가족주의적이고 집단주의라고 정리했다.³¹ 이는 요새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인의 특징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다.³²

최인재와 최상진은 한국문화의 인간관계에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정(情), ‘우리’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소가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그리고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14명의 대학생과 230명의 고등학생 등 총 444명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情) 관계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관계적 성숙이 정(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며 이로써 한국문화의 특성을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의철과 박영신도 자유 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를 분석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도출했다. 첫째는 자기에 대한 인식에서 관계 내 역할의 중요성이었으며, 둘째는 관계 맥락 속에서 유동성 있게 변하는 자기의 특징이었다.³³

김열규는 한국인다운 심성으로 신명과 원한을 꼽기도 한다.³⁴ 고건영, 김진영

30 차재호·정지원,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993), 150~163쪽.

31 이근후,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조사」, 『이화의대지』 18(1995), 383~389쪽.

32 인터넷에서 ‘한국인 특징’을 검색하면 빨리빨리와 속도, 관계 중시 및 ‘우리’ 문화, 높은 경쟁심과 비교 문화, 체면과 인정 욕구, 관계에 따른 행동 변화, 내성적·권위주의적 일면, 비현실적 낙관주의, 정(情)과 배려 등이 결과로 나온다.

33 김의철·박영신,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006), 1~36쪽.

34 김열규, 「한국인의 ‘원형’ 찾아 학문땀길 삼십년: “한국민속과 문학연구”부터 “한국신화와 무속연구”까지」, 《출판저널》 231, 1998년 3월.

도 한국인의 정서적 지혜 개념으로서 한(恨)의 타당성을 검토했다.³⁵ 이영의는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로 간주되고 있는 한(恨)을 인지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한(恨)의 구조를 제시하였다.³⁶ 최해연과 최종안은 한국 문화 맥락에서 정서 단어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정서 경험 구조를 이해하려고 했다.³⁷ 강원택의 연구보고서는 정치 공동체와 영토성에 관해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변수가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³⁸ 한민 외는 한국인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한국사회의 마음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른바 ‘한국인의 마음 지도’ 설계를 시도했다.³⁹ 원홍희 외는 한국인 교육 성취도가 높은 유전적 원인을 밝혔는데,⁴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한국인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에 대한 정보나 학습적 유전의 원인은 한국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황병기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인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자연스러운 정(情)의 정서와 어울림과 상생의 정서는 면면히 한국인의 정서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가 최근 한류로 나타나 전 세계인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했다.⁴¹

2. 현대 외방인이 생각하는 한국인

현대 동아시아의 한류 연구자들은 한국인의 프로 정신, 유교적 가치관에 많

35 고건영·김진영, 「한국인의 정서적 지혜: 한의 실험」, 『정신문화연구』 28-3(2005), 255~290쪽.

36 이영의, 「한국인의 대표 감성으로서의 한(恨)의 구조」, 『호남학』 49(2011), 149~185쪽.

37 최해연·최종안, 「한국인의 정서 구조와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016), 89~114쪽.

38 강원택,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_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동아시아연구원 연구보고서(2020.10).

39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김진형, 「한국인의 마음지도 I: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012), 435~464쪽.

40 「학업 역량, 유전자로 정해진다... 아시아인 17만 명 연구」, 『조선일보』, 2024년 1월 8일.

41 황병기, 「일상에서 읽는 한국인의 정체성」, 『국학연구』 24(2014), 429~466쪽.

은 현지인들이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⁴² 『한국인을 말한다』⁴³의 저자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은 한국의 훌륭한 점으로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인터넷·TV·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등으로 정의하고, 한국인은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했으며 특히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묘사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주장은 모두 현대 외방 연구자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한류가 전 지구적으로 한창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지금 외방인의 한국인에 대한 표상은 역대급으로 긍정적이다. 여기서 2006년 11월에 작성된 한 이집트 외교관의 뉴스 레터를 보겠다.⁴⁴ 이를 보면 개화기로부터 150여 년의 차이를 두고 외방인의 한국인에 대한 표상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익명으로 작성된 이 글에서 이 외방인이 강조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표상은 한국인은 ‘성공지향적’이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이타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긴 식민지와 파괴적인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겨우 한 세대 만에 세계 11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성공담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 보고 싶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한국의 성공에 관한 질문의 답이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을 중요시하고, 그것이 인재를 뽑을 때 기준이 되고, 사회적 지위의 지표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가 발전을 낳게 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인상 깊은 점으로 한국인의 성격을 꼽았다. “나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더 밝은 미래를 갈망하는지를 확인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설 혹은 과학, 정치, 경제, 음악,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있으며 이 젊은 세대가 다이나믹 코리아를 만들어 낸다. 내가 목격한 또 하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남녀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외국

42 당 티에우 응언·응우옌 티 하·베 돌마·하티제 피르올루 튀르피쥬·빠릿 인센·모리 도모 오미·최원재, 『아시아가 말하는 K컬처 한류학』(괴산군: 정한책방, 2026).

43 마이클 브린(지), 김기만(역), 『한국인을 말한다』(서울: 홍익출판사, 1999).

44 「한국사회 발전을 앞당긴 한국인의 특징」, 《KF 뉴스레터》 Vol. 36(2006.11).

인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 체류하기 시작한 첫 한 달 동안 도움이 필요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내가 길을 찾는 데 당황한 듯한 행동을 취하기만 하면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자신이 길을 모르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주기까지 했다.”

다음은 셴 추(Shawn Chew)라는 미국인 학생이 2025년 4월 23일 웹사이트⁴⁵에 게재한 글(Articles from the 2025 Writing Contest)이다. 제목은 ‘한국의 집단주의(Korea’s Collectivism)’이다. 한국의 집단주의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의견이다. 이 미국 학생은 개인의 문제에 대해 모두가 배려, 우정 등으로 공감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보통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케이팝 아이돌이나 한국 시리즈물 등을 엄청 흥미롭게 즐긴다. 하지만 나는 한국의 집단주의를 좋아한다. ‘집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쓰면 ‘group’이고 ‘주의’는 사상이나 생각 등을 표현한다. 본질적으로 집단주의는 한국에서 공부하기 전 전혀 몰랐던 것이었다. 그래, 아마 한번 사전에서 본 적 있을 수도 있고, 미국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역사 수업에서 배운 적 있다고도 그러는데, 과연 집단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직접 경험으로는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생활하고 있을 때도 그저 조금만 더 알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약 반년 생활한 후 한국 사회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 국무부 지원으로 집중적인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참가했다. 하루의 일정은 아침 한국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오후 잘 알려진 한국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저녁 단체 문화 활동하는 것들이 평범했다. 게다가, 호스트 가족과 함께 살기도 했다. … 그렇게 서울에서 공부하고 살 때 한국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교환을 자연스럽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서로 잘 알게 되었고 친해졌다. 한국 친구들과 사귀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집단주의의 중심 가치를 깨달았다. 한국어로는 ‘우리 친구’(나의 친구 말고)

45 Global Expressions(검색어: 한국의 집단주의)(<https://sites.lafayette.edu/ge/2025>).

라고 부른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친구가 배려와 공감을 주었고 많이 위로했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문제들을 마주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 모든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 끝없는 무조건 배려와 우정이 집단주의이다. 존중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가족, 효도, 사랑, 배려심, 체면과 명예. 한국을 잠시만 머무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세계 속에 어디서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그러한 것도 알기를.

그러나 부정적인 한국인 표상도 있는데, 약 30년을 한국에서 생활한 지한파 인사인 이케하라 마모루는 그의 저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에서 한국인의 표상을 ‘충체적 무질서’로 규정했다.⁴⁶ 얼마 전 동남아시아에서는 반한류 기류도 나타났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한국인의 성격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인터넷에 돌고 있다.

한국인들은 백인보다 나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하얀 척한다. 하지만 실상은 성형으로 이미지를 꾸며낸 원숭이 무리에 불과하다.⁴⁷

이러한 이슈 속에서 언론의 표현과 이미지는 부정적인 한국인의 표상을 만들어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미디어를 통해 조선인이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하나의 대명사로 양식화된 것도 이러한 표상 구조화다.⁴⁸ 그러나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한국인의 표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베트남, 몽골, 튀르키예, 태국, 일본의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류의 인기에는 한국인의 표상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들이 말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표상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영화와 음악은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적 정서를 담았다. 가족애, 역경을

46 이케하라 마모루,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서울: 랜덤하우스, 1999).

47 「원숭이 이미지에 성형 조롱... 한국·동남아 네티즌들 ‘혐오 전면전」, 《YTN》, 2026년 2월 20일.

48 김여진, 「1919년 3·1운동 전후 부정적 조선인 표상과 불령선인 담론의 형성: 일본어 신문 미디어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4(2020), 143~178쪽.

넘는 사랑, 충성심 등이 그것이다.⁴⁹

튀르키예의 한류 붐은 먼저 K-드라마와 함께 시작됐다고 본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튀르키예 국민들의 정서에 K-드라마는 할리우드 쪽의 영화나 드라마의 대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의 자유분방하고 선정적인 장면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TV 드라마에서 보이는 장면들은 폭력적이지도 선정적이지도 않은 가족 중심의 스토리를 담은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 주거나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달콤한 로맨스 위주의 이야기를 서민적으로 풀어냈다.⁵⁰

한국 드라마는 인물 간의 관계, 감정의 흐름, 그리고 캐릭터의 성장 과정을 섬세하고 깊이 있게 묘사하는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랑, 유대감, 상실, 역경 극복과 같은 다양한 감정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와 서사적 맥락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감정 서사의 구축은 시청자와 드라마 사이에 일종의 ‘정서적 공유 공간’을 형성하며, 이는 시청자가 이야기 속으로 몰입하여 지속적으로 서사를 따라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사랑, 가족, 희생, 인간 관계와 같은 보편적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내어 태국 시청자들의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한류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 드라마는 가족애·효·헌신·정서적 소통을 강조하는 서사 구조를 통해 태국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정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 한국 드라마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통해 재현되는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이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대체로 근면성, 성실성, 목표 지향적 태도, 그리고 지속적 발전을 중시하는 특성을 일관되게 보여주는데, 이는 현대 한국 사회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이미지와도 밀접하게 부합한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한 ‘한(恨)’과 ‘정(情)’의 정서 구조, 그리고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과도 맞닿아 있다.⁵¹

49 당 티에우 응언 외, 앞의 책(2026).

50 하티제 피르올루 튀르피주, 「튀르키예 ‘인연’ 정서의 거울, 코레잔(Korecan)」, 『아시아가 말하는 K컬처 한류학』(괴산군: 정한책방, 2026).

51 빠릿 인센, 「명(名)이 등장한 세상, 태국」, 당 티에우 응언 외, 앞의 책(2026).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한국인의 표상은 ‘가족애’다. 유교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한국인에 대한 이러한 외국인의 반응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현대 한류에서 그러지는 한국인을 통해 한국인의 표상이 영상 콘텐츠로 드러나는 데에 대략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현대 한류 이전에 한국인의 표상 정립에 걸린 시간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위 ‘중세 한류’ 시기인 조선시대의 허난설헌 같은 작가들에 대한 일본과 명나라의 대대적인 팬덤도 있었다.⁵² 오래전부터 관찰한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역사 속에 커져이 쌓여 오늘날 한국인의 표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한국인을 알기 위해서는 외방인이 오래전부터 관찰한 한국인의 모습을 직접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은 ~하다.’라고 명제적으로 주어지는 연구 결과를 무턱대고 수용하고 전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서 한국인에 대한 표상이 외방인인 선교사와 일반 서구인들 사이에서 아무런 맥락 없이 “서로 베껴 쓰는 작업”을 통해 더욱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⁵³ 따라서 외방인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당시 상황의 기록으로 들어가 한국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기록으로 들어가 한국 관련 데이터를 직접 접하면서 관찰자의 위치에 있던 외방인이 되어 당시 외방인이 한국인을 어떻게 보았을 것인가를 몸소 경험해 보고 그 안에 담긴 심리를 따져 봐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외방인도 모두 인정하는 한국인의 표상을 주장할 수 있다.

52 최원재, 『조선의 빅데이터, 송남잡지를 찾아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의 마지막 백과전서』(괴산군: 문화잇다, 2025).

53 김윤성,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Ⅲ. 《모닝칼》에서 확인하는 근대 한국인의 표상

1. 《모닝칼(The Morning Calm)》

《모닝칼》은 1890년부터 1939년까지 발행된 영국 성공회의 선교지다. 이 안에는 크고 작은 한국의 내용이 영국 지식인의 눈으로 읽혀 기록되어 있다. 크게 (1) 영국 성공회와 주교의 동향 (2) 선교지 한국에 대한 소식 (3) 해외 여러 선교지의 상황 (4) 선교자금 모금 및 집행 상황 (5)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소식은 항상 주교의 편지(The Bishop's letter)로 시작한다. 이 편지에는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정세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생각과 선교지에 관한 정보 등이 나타나 있다.⁵⁴ 여기에 나타난 한국(인)을 바라보던 시선, 한국의 인프라 상황, 굶직굶직한 정치 상황(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등 영국인의 시선에서 미시적으로 풀어 놓은 개화기 당시 한국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이 놓쳤을 법한 꽤 많은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외방인의 사료 데이터로 한국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자 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이다.

대략 100년 전 영국인 선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인은 어떠했는지를 읽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들추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의 표상을 정의하기 위한 수많은 객관화 과정 중의 하나다. 누군가가 연구한 결과만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마치 진실인 듯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들이 있던 곳으로 가 관찰자의 눈으로 당시를 짚어 냄으로써 정확하게 한국인의 표상 구조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대외 채널이 별로 없던 시기에 《모닝칼》에 적힌 한국에 대한 묘사는 외방인의 한국인 표상 구조화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닝칼》 시리즈 중에서 200호부터 229호까지의 내용을 살펴 본다. 《모닝칼》은 1890년부터 1939년까지 50년 동안 발행되었다. 이 시기에 월간, 계간으로 출판되며 상당히 많은 한국 정보가 생산되었다. 1890년부터의 초기 내용은 한국에 대해 무지한 외방인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정보가 많이 실렸다.

54 최원재, 앞의 논문(2022), 129~190쪽.

한국의 것에 신기해하고, 한국어 성경을 출판하고, 초기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한국을 탐험하는 등 미지의 세계에 발을 디딘 이방인의 모습으로 한국을 보고 평가했다. 한국인과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이런 내용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다른 외방인의 기록에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모닝캄》 시리즈의 후반부인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내용은 근대화를 통과하는 한국과 한국인을 바라보며 느낀 심정을 피력했다. 이때는 19세기 말 한국에 상륙한 선교사들의 활동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이 무심코 가졌던 오리엔탈리즘을 언제까지나 고수할 수는 없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발간된 《모닝캄》 시리즈의 내용에도 이미 한국의 문명도를 판단할 만한 ‘관립학교’, ‘음악 강의’, ‘화재보험’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이 무렵 성공회도 교세가 확장되어 한국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 사목자를 배출하는 등 미개척지로서 한국이 아니라 산업화의 영향을 받는 극동의 한 곳으로 한국을 대하기 시작했다. 다음 기사의 인용문을 보면 근대화된 한국의 모습이 보인다.

지난 2년간 영국에서 유학했던 세 명의 학생, 두 명의 부제인 쿠도 요한과 김바울, 그리고 고바야시 양이 돌아오면서 교직원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인 김바울 신부는 영국으로 가기 전 근무했던 평양으로 돌아갔고, 쿠도 씨와 고바야시 양은 타이큐(Taikyu, 대구)에 있습니다. 1930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인, 일본인, 영국인을 합쳐 세례자 수가 5,385명에서 5,458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⁵⁵

이제 왕은 떠났습니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사라졌고, 좁은 골목길은 잘 포장된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여행 방식도 달라졌습니다(선교사가 작은 조랑말이나 낡은 의자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시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철도(매년 새로운 노선이 건설됩니다), 도로, 자동차, 그리고 도시에는 전차나 버스가 운행됩니다. 트롤로프 주교 시대에 새로 등장했던 인력거조차 택시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우루산(울산)의 새로운 공항에서 수도까지 매일 항

55 《모닝캄》, No. 207, 1931년 1월 20일.

공편이 운행됩니다. 정부 청사나 미쓰코시 백화점 같은 웅장한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고, 영화관과 라디오 방송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과 법 위반자에 대한 태형 제도가 시행되었고, 병원·학교·대학교도 생겼습니다. 모든 마을에는 서양 의약품을 살 수 있는 약국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게들은 천장에 수백 개의 작은 봉지가 매달려 있고 그 안에 호랑이 발톱 같은 ‘만병통치약’이 들어 있던 옛날식 가게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⁵⁶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마을 곳곳에 자립형 자립생활조합(self-improvement societies)이 결성되어 농업·위생·경제 등 더 나은 생활 방식을 가르쳐 검소함을 길러 주려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가라(By your own efforts live again)’, 즉 ‘차 룽크 카잉 사잉(Cha Ryok Kaing Saing, 자력갱생)’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사치를 부리지 말라고(not to spend money extravagantly on weddings and funerals)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경찰이 주민들에게 신령 숭배 복장(spirit-worshipping outfits)을 벗으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⁵⁷

SPG(성공회)의 뭇인 280파운드는 지정된 세 가지 용도, 즉 남녀 기숙사 100파운드, 성 미카엘 신학대학 130파운드, 그리고 건물 화재 보험료 50파운드(£50 for fire insurance on buildings)에 사용되어야 합니다.⁵⁸

이때의 서술은 오리엔탈리즘 중심의 집필 방향을 무턱대고 지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서방인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이미 오리엔탈리즘 방향의 많은 기록을 남기고 활동을 시작한 지 20~30년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몰락기에 쓰인 초기 시리즈에서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춘 한국에서 당시 한국인의 면면을 비교적 중립적인 외방인 관점에서 기

56 《모닝캄》, No. 207, 1931년 1월 20일.

57 《모닝캄》, No. 215, 1933년 4월.

58 《모닝캄》, No. 216, 1933년 5월 18일.

록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이 출판한 ‘그들이 본 우리’ 총서 시리즈 중 『극동(極東, The Far East)』도 1933년부터 1953년까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기관지에 실렸던 한국 관련 기사들을 번역하여 엮었는데, 여기서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1930년대 이후 근대 한국인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가 이때의 기록을 연구 대상으로 정한 이유도 한국인 묘사에 대한 어느 정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모닝캄》에 나타나는 1920~1930년대의 한국인

1920년대와 1930년대 근대 외방인이 가졌던 한국인의 표상을 찾기 위해 현대에 한국인 하면 손에 꼽는 표상을 되짚어 나간다. 2장의 결과를 보면 2026년 현재 한국인이나 외방인 모두 공통으로 말하는 한국인의 표상은 ‘교육열’, ‘가족주의’, ‘관계주의’, ‘집단주의’를 말한다. 이는 한국적 집단주의(We-ness)라고 불릴 만하다. 이러한 표상이 실제로 과거 외방인에 의해 서술되었는지, 서술되었다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모닝캄》에서 찾는다. 근대에 발간된 《모닝캄》에 이런 한국인의 특성이 서술되어 있다면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한국인의 표상은 요새 들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0여 년의 역사를 갖는 엄연한 한국인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인의 표상: 교육열

… 그동안 저는 이 도시에 작은 호스텔(기숙사)을 열었습니다. 네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두 명은 일반고등학교에 다니고, 한 명은 초등학교 교사 양성 과정에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정부 의과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모두 시골 출신입니다. … 이 기숙사 덕분에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많은 학생은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의대생은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면 하루에 네 번씩 체온을 재달라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환자를 대하는 예절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⁵⁹

59 《모닝캄》, No. 200, 1929년 7월.

성공회는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주요 선교 사업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후에도 교육과 관련한 기사가 종종 연재되었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국 선교사들이 보기에 한국인은 배움을 좋아하고 성공회의 교육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기숙사를 운영한 이유도 한국인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위 인용문에는 한국인에 대한 성공회 학교의 교육 운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외방인이 보기에 ‘한국인 하면 교육’을 떠올렸을 만큼 한국인은 교육에 열정적이었다. 기사에 나온 대로 ‘많은 학생은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Many students in these cities live under conditions which are damning to their bodies and souls.)’에서 살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한국인은 교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한국인은 의사가 되려고 한다. 1906년에 미국 선교사 헐버트가 쓴 『대한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에도 한국인이 가졌던 교육에 대한 애정이 나온다. 그는 ‘교육에 투자하여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은 조선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고 적었다. 지금도 한국인과 외방인이 모두 인정하는 한국인의 표상에는 ‘배움’, ‘학습’, ‘교육’이 있다. 다음 기사에서도 외과의사가 된 한국인을 인용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난 어떤 소녀가 19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인솔자로 삼아 900마일이나 떨어진 일본으로(an educational tour in Japan, 900 miles away) 견학을 가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0년 전, 우리 마을의 어떤 소년이 결국 일본인 선생님들 밑에서, 그 것도 비엔나, 베를린, 파리에서 유학한 선생님들에게 훈련받아 외과의사가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⁶⁰

미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한국인 외과의사가 나왔고, 학생들은 일본으로 견학을 떠났다. 식민지 시기에도 배움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는 한국인의 모습이 보인다. 이 한국인이 식민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지 개인의 영달을 위

60 《모닝캡》, No. 202, 1930년 1월.

해서 배우는 것인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식민지 피지배층이 식민지 상황에서 의사가 되려면 배움에 대한 얼마나 큰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는 예상할 수 있다. 김근배의 연구에 따르면 1920~1930년대 4년제 의학전문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비는 1,700~2,200여 원으로 연평균 5백 원에 달했다. 식민지 치하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 큰 액수였다. 재정적인 문제 말고도 일제의 억압 정책 때문에 조선인들이 초등부터 고등과정까지 교육 기회를 얻는 것은 순탄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⁶¹

큰 문제 중 하나는 고학년 아이들의 학습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집에서도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They are kept so hard at work at school and have so much home study). 방학 때조차도 아이들에게 훈육과 도움을 줄 기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⁶²

이때도 한국인 아이들의 학습량은 대단했다. 한국인 표상 형성에 있어서 100여 년 전 한국인과 지금의 한국인에게서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요소가 공부다.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는 본인을 16세 한국인 중학생이라고 밝힌 사용자가 ‘하루에 평균 14시간 정도를 학교와 학원에서 보낸다며 이렇게 공부하지만 늘 부족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⁶³ 이쯤이면 외방인은 한국인의 표상으로 과중한 학습량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법하다. 영어가 된 한국어 중에는 ‘학원(Hagwon)’도 있다. ‘School’도 아니고 ‘Academy’도 아닌 ‘Hagwon’은 높은 교육열을 보여 주는 한국 사회만의 학습 형태의 독특함을 보여 주는 단편적인 한 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교육열을 볼 수 있는 사례를 또 하나 확인했는데, 바로 부모의 태도다.

61 김근배,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의사되기: 해방 직후 북한의 의과대학 교원들을 중심으로」, 『의사학』 23(2014), 429~468쪽.

62 《모닝캄》, No. 200, 1929년 7월.

63 「하루 14시간 공부' 韓 교육열, 혀 내두른 외국인 "나라면 못 해"」, 《르테스크》, 2024년 9월 5일.

한국인들은 학교와 교회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학교가 있든 없든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They resent not having help for local schools). 자녀들이 훨씬 더 나은 교육을 같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학교 보조금이 중단될 때마다 화를 냅니다(They are annoyed whenever a school grant is withdrawn even though there is ample provision for their children to get a much better education, and at the same cost). … 학교는 일종의 뇌물이며, 결국에는 사역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Schools are a form of bribe, and ultimately it makes the work more difficult).⁶⁴

위의 인용문에서 부모는 교육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낸다(They resent not having help for local schools). 학생 당사자의 교육열 외에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쩌면 이는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또 다른 한국인의 표상일지도 모른다. 한국인을 지독하게 혐오했던 잭 런던조차 인정했던 한국인의 긍정적인 면에 자식(아이) 사랑이 있었고, 아손 그랩스트와 다블뤼 주교도 모두 한국인의 자식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다. 한국인의 강력한 교육열의 기반과 저변에 이러한 부모의 자식 사랑 분위기가 있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역사에는 부모의 교육열의 대표적인 사례로 1964년 말 발생한 ‘무릅 파동(일명 ‘엿 먹어라!’ 사건)’이 있다. 중학교 입시 자연 과목에서 ‘디아스타제’가 정답인 문제를 ‘무릅’으로 적어 낙방한 학생 학부모들이 분노하여 무로 만든 엿을 들고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항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69년 중학교 입시는 폐지되었다. 자식 교육에 관해서라면 참지 못하는 이러한 한국 부모의 태도도 한국인의 교육열로 볼 수 있다면 《모닝캄》에서 기록한 분노하는 부모의 태도 역시 한국인의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 교육사에서 보면 현대 한국인이 갖게 된 높은 교육열의 시발점으로 1920~1930년대를 지목한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가 1919년 3·1 운동 이후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한국인의 보통학교 취학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64 《모닝캄》, No. 200, 1929년 7월.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아이의 교육을 놓고 부모 간의 경쟁이 높아지는 사회로 가고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앞의 기사에 인용한 ‘한국인의 의대 진학 열풍’을 민족 부흥을 위한 대승적 행동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법대 진학 열풍도 마찬가지다. 공부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당국의 차별을 이겨 낸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교육열만을 놓고 보았을 때 한국인은 우수했으나 결과적으로 식민지에 존재하는 차별들을 타파하기보다는 식민지 당국의 판 위에서 신분 상승을 꾀한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⁶⁵ 당시 교육열에 함축된 의도를 읽는 방향은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한국인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모닝캄》은 주목했고, 이러한 교육열은 지금의 외방인에게도 한국인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2) 한국인의 표상: 가족·관계·집단주의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의 초기 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선 기사에서 인용한 것처럼, “말하는 방식!(How they talk!)”이었습니다. ... 한국어는 예의와 공손함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어(Korea)의 “C”(한국이 아닌 Korea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예의(Courtesy)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한국어 사용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를 공손한 언어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한국어의 목적은 항상 듣는 사람을 칭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고상한 표현은 절대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처럼 말에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습관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쩌면 인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손함은 겸손함과 같으며, 겸손함은 공손함 못지않게 한국인의 인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⁶⁶

65 김슬기, 「식민지 조선의 법대·의대 진학 열풍: 경성제국대학 조선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77(2023), 225~256쪽.

66 《모닝캄》, No. 227, 1936년 2월 24일.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바는 한국인의 표상을 외방인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외방인의 기록에서 찾는 것이다. 100여 년 전에 외방인은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했고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놀랍게도 위의 기사 제목이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AND THIS IS COREAN!”)”이다. 벌써 저 시절에도 한국인의 독특함은 별도의 기사가 될 정도로 눈에 띄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성격은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다. 오늘날 외방인이 느끼는 바와 같다. 그리고 《모닝캄》에 따르면 이러한 인격 형성에 한국어가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말에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습관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찌면 인격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공손함은 겸손함과 같으며, 겸손함은 공손함 못지않게 한국인의 인격에 필수적인 요소(This putting oneself low and others high in speech has its effect upon character, or, perhaps, is an indication of it. To be polite is to be humble, and humility, no less than courtesy, is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character)’라고 결론을 내면서 한국인의 표상에 ‘공손’과 ‘겸손’, 그리고 ‘언어’를 포함한다. 한국인 특유의 가족주의는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시-이를 한국적 집단주의의 특성인 우리성(We-ness)으로 볼 수 있다-하며 사회 체계를 가족과 같은 끈끈한 관계(情)로 받아들이려는 특성이 있어서 가족 내 서열과 유사한 관계를 맺는다. 또한, 상대방과의 친소 관계가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말을 잘 안하는(unforthcoming)”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좋아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잠시 내버려두면 됩니다. 점차 그들은 일어나서 친절하고 수용적(friendly and receptive)이게 됩니다. 한자가 저를 “Ommanim(어마님)”이나 “Halmanim(할마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함께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를 조금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⁶⁷

가족 확장성, 즉 사회적 가족주의라고 불리는 현상이 《모닝캄》에서 발견된다.

67 《모닝캄》, No. 202, 1930년 1월.

한국인에게는 가족 외부의 관계(회사, 지역사회)도 가족 구조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것처럼 남을 ‘어마님’, ‘할마님’으로 부르는 것이 그 예이다. 생물학적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삼촌’, ‘이모’,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행위 역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화된 문화라서 남을 가족 호칭으로 불러야 편안함을 느낀다(I know that he is showing unconsciously that he begins to feel at home with us). 서양의 문화에서는 이런 친족관계 부름말이 부적절하고 예의 없게 들렸을 수도 있으나⁶⁸ 이것이 가족주의와 집단주의를 형성하는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앞의 2장에서 한국인과 외방인 모두 한국인의 표상으로 꼽은 것이 가족주의다.

한국인에게 가족주의는 단순한 혈연 집단을 넘어, 삶의 목표, 가치 판단의 기준, 그리고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문화적 표상이다. 유교적 가(家)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장유유서, 조상 숭배 등을 중시하며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하는 유교 문화에 기원을 둔다. 지금 많은 한류 팬덤이 이러한 한국인의 가족주의에 매력을 느낀다. 한류 드라마와 영화의 성공 요인은 유교적 전통, 인본주의, 사랑, 그리고 가족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정서적 서사에 있다.⁶⁹ 한국 특유의 정서, 즉 가족애를 강조하는 한국인의 감수성은 여러 문화권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표상 중에 ‘효 문화’, ‘가족애’는 현대 한류를 거슬러 올라가 적어도 100여 년의 역사를 갖는 것임을 《모닝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가족주의는 집단주의, 관계주의와 섞여 한국만의 독특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냈다.

《모닝캄》 227호에서 주목한 것은 한국어에 서려 있는 공손함과 예절이었으나 한편 이러한 한국 사회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은호와 박경우는 한국인은 호칭과 경어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나이나 계급에 따라 대화의 위치가 결정되는 위계적인 집단 구조를 보여 준다고 한다.⁷⁰ 오랜 집단주의 문화와 유교 사상에

68 오상이, 「문화 대비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독일어의 호칭과 경어형태」, 『독일어문학』 13(2005), 243~262쪽.

69 당 티에우 웅언 외, 앞의 책(2026).

70 여은호·박경우,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 학연구』 9(2009).

기반한 관계 중심적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며, 이는 타인과의 조화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라는 말을 이용하는 화법도 집단 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버릇이다. 이는 앞서 말한 한국인의 가족주의와 관계주의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타인의 반응을 살피고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거나 주장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는 눈치(Nunchi) 문화로 이어졌다.

허재홍과 오충광은 눈치가 한국 사회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기제이며, 특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면서 눈치 수준이 높으면 더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⁷¹ 《모닝캄》에서 극찬한 한국인의 공손함과 겸손함은 분명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인의 표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손함과 겸손함에 가려진 한국인 특유의 언어 습관과 성격이 투영된 한국의 전형성에는 눈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눈치 문화와 관계주의는 동전의 앞, 뒷면과도 같다. 관계주의는 개인이 독립적인 존재보다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문화적 특성이자 이 관계주의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달한 사회적 감각이 눈치다. 눈치는 관계주의 문화에서 생존과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눈치가 있으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나 상황적 맥락을 미연에 파악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에서 명확히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진짜 의도를 헤아릴 수 있게 된다. 눈치가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명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되고, 이는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높여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눈치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존중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⁷² 눈치라는 말도 영어가 된 한국어의 사례로 꼽힌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발견하지 못해 번역도 되지 않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자 한국인의 표상이 된 것이다. 이 눈치 문화는 한국인만의 문화증후군인 ‘화병(Hwabyung)’과도 연관된다. 화병은 억울함이나 분노를 밖으로

71 허재홍·오충광, 「눈치와 개인의 문화성향,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5(2018).

72 허재홍, 「눈치가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5(2014), 1067~1084쪽.

표출하지 못하고 쌓아 두어 발생하는 신체화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다. 고맥락 문화에서 타인의 시선과 상황을 과도하게 살피는 눈치 문화가 감정 억제를 부추기고 화병으로 이어진다.⁷³

한국 식사에는 코스 요리가 없고, 처음부터 모든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많이 먹을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놓인 식탁(food table, 여기서는 상, 소반을 말함)은 남녀가 따로 식사하는 관습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방이 두 개 이상인 집에서는 남녀가 각자의 방에서 식사를 합니다. 방이 하나뿐인 집, 즉 도시 거주자들 중 상당수가 가족이 방이 하나뿐인 집에서 살지만, 적어도 각자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림 속 기독교 가족은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만약 제가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면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릴 테고, 아들은 이것저것 나르며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어린 딸은 문틈으로 '서양 사람'이 밥 먹는 낯선 광경을 엿볼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 방에서 식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삶에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고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라는 유일한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 한국인들의 식사 시간은 매우 짧아서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면 유월절 때의 '서두름'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 두 명이 같은 방의 각기 다른 테이블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중절모만 큼 높이 쌓인 밥그릇을 제가 계란 하나를 깨고 빵에 버터를 바르는 데 걸린 시간 동안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먹고도 마치 차 한 잔과 비스킷 하나만 먹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⁷⁴

73 권찬영, 「한국인 M세대와 Z세대의 화병 비교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5(2024), 399~411쪽.

74 《모닝캄》, No. 229, 1936년 10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 기사는 한국인 특유의 가족주의, 개인주의, 관계·집단주의를 한 번에 여실히 보여 준다. 특히 첫째 줄에 나오는 ‘처음부터 모든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많이 먹을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인용문은 한국의 식문화가 포용성 공동체적 나눔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⁷⁵ 한국만의 특유한 집단주의 공동체 문화다. 그리고 ‘가족이 같은 집에 있긴 하나 식사는 각자가 자기의 상에서 따로따로 한다(they would at least eat at separate tables)’. 그리고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 두 명이 같은 방의 각기 다른 테이블에서 아침을 먹는다(my two Korean fellow workers, who were eating their breakfast at separate tables in the same room).’라는 인용문은 한국인의 개인주의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는 또한 집단주의로 인한 개인주의다. 유교 사회에서 남녀를 분리하는 집단의식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개인주의다. 소반 식문화 역시 신분제라는 집단의식이 만들어 낸 개인주의다.⁷⁶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인의 삶에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for in Korea eating is associated with the idea of privacy. There is very little privacy in the Korean’s life compared with ours).’라고 하는 대목이다. 이는 가족·관계·집단주의의 표본으로, 유교적 세계관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부분과 전체는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를 변화하는 관계적 존재로 받아들인다. 정태연은 이러한 유교적 세계관은 맥락 속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한국인만의 가족·관계·집단주의 인식론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한다.⁷⁷ 한국인은 현상을 설명할 때 장(場)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고, 분석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형태의 사고를 하며, 사물을 묶을 때 특성의 범주화보다는 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외적인 맥락이나 상황을 더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앞서 말한 한국인이 관계적인 측면의 경향이 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75 오세영·이현, 「한국인의 공동체의식과 식문화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5(2004), 1225~7060쪽.

76 주영하,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서울: 휴머니스트, 2018).

77 정태연,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2010).

‘혼자 방에서 식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삶에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고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라는 유일한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Or possibly I might be left in a room to sup in solitary state, for in Korea eating is associated with the idea of privacy. There is very little privacy in the Korean’s life compared with ours. The one time he expects to be left alone and not looked at is at eating-time).’라는 인용문은 다시 말해, 식사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한국인은 항상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그나마 혼자의 시간인 식사 시간은 지극히 짧다(the time taken by Korean meals is very short, the average time of five to ten minutes). 이는 한국인의 관계·집단주의 태도를 약 100년 전에 《모닝캡》도 기록한 것인데, 이러한 관계·집단주의적 양상은 지금도 한국인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다.

‘팩츠 앤드 디테일즈’라고 하는 웹사이트⁷⁸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다. 여기서도 한국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사생활의 부족(Lack of Privacy in Korea)’이라는 내용을 실었다. 우리는 지금도 다른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참견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할 때가 있다.⁷⁹ 그러나 앞 장에서 선쉐(Shawn Chew)라는 미국인 학생이 한국인의 집단주의에 호감을 보였던 것처럼 한국적 집단주의는 양가적인 특성을 갖는다. 박윤·심형인·이숙중(2014)의 말대로 ‘한국인에게는 집단주의 문화와 한국 토착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간관계의 양상과 형태에 있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⁸⁰ 이러한 한국인만의 특성을 조선에서 사역하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들은 ‘극도의 불임성’이라고 직관적으로 설명했다.

조선인들은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살던 옛날 유대의 사람들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 요컨대 조선인은 소박한 심성에 선한 성품을 지닌

78 팩츠 앤드 디테일즈(<https://factsanddetails.com>).

79 「설 명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 1위는?」, 《경향신문》, 2017년 1월 24일.

80 박윤·심형인·이숙중, 「한국인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과 척도개발: 온정적 인간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014), 415~441쪽.

사람이고, 그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인은 또한 극도로 불임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점이 조선인들이 항상 마을에서 사는 이유일 것입니다. 외딴집이란 것은 이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⁸¹

IV. 맺음말

한류가 최고의 정점에 선 지금 한국인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은 어떤 곳이고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물음과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과 외방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을 고찰한 후 실제 사료를 통해서 한국인에 관한 표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공회 선교사의 기록인 《모닝캄》을 연구했다. 한국인은 한국인을 설명하면서 열등의식, 서열의식, 상향의식, 집합주의, 집단주의, 가족주의, 개인주의가 한국인의 표상을 구성하며 한국인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관계적이라고 했다. 한편, 외방인은 한국인에게는 성실함, 높은 교육열, 집단주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표상은 한국의 유교 문화가 만들어 낸 가족애, 효 등의 정서와도 크게 관련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현대의 한국인 표상을 토대로 《모닝캄》 200호부터 229호까지 한국인을 묘사한 부분을 추적한 결과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가족-관계-집단주의가 나타나는 대목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닝캄》에 묘사된 생생한 근대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외방인에게 한국인의 표상이 만들어진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표상 중에 ‘교육열’, ‘가족-관계-집단주의’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극동: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파주: 살림출판, 2017)

참고문헌

1. 1차 자료

《모닝칼(The Morning Calm)》No. 200~229.

2. 논저

강명숙, 「일제시대 교육과정 제시 체계와 초등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사학연구』 20, 2010, 1~24쪽.

고건영·김진영, 「한국인의 정서적 지혜: 한의 싹틔움」, 『정신문화연구』 28-3, 2005, 255~290쪽.

권찬영, 「한국인 M세대와 Z세대의 화병 비교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5, 2024, 399~411쪽.

김근배,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의사되기: 해방 직후 북한의 의과대학 교원들을 중심으로」, 『의사학』 23, 2014, 429~468쪽.

김대현, 「교육심리학자 윤태림의 ‘한국인의 성격’ 논의와 미국 정신분석학의 명암」, 『한국사연구』 210, 2025, 457~495쪽.

김슬기, 「식민지 조선의 법대·의대 진학 열풍: 경성제국대학 조선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77, 2023.

김여진, 「1919년 3·1운동 전후 부정적 조선인 표상과 불령선인 담론의 형성: 일본어 신문 미디어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4, 2020, 143~178쪽.

김윤성,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의철·박영신,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 2006, 1~36쪽.

당 티에우 응언·응우옌 티 하·베 돌마·하티제 궤르올루 튀르궤주·빠릿 인센·모리 도모 오미·최원재, 『아시아가 말하는 K컬처 한류학』, 괴산군: 정한책방, 2026.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1885~191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마이클 브린(저), 김기만(역), 『한국인을 말한다』, 서울: 홍익출판사, 1999.

박윤·심형인·이숙중, 「한국인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과 척도개발: 온정적 인간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 2014, 415~441쪽.

방민규, 「생물인류학 자료로 본 한국인 기원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9, 2018, 1211~1226쪽.

빠릿 인센, 「명(命)이 등장한 세상, 태국」, 당 티에우 응언 외, 『아시아가 말하는 K컬처 한류학』, 괴산군: 정한책방, 2026.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극동: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파주: 살림출판, 2017.
- 아손 그래스트(저), 김상열(역),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서울: 책과함께, 2005.
- 안종철,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조지 M. 맥클을 중심으로」, 이태진교수 정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편), 『세계 속의 한국사』, 파주: 태학사, 2009.
- 여은호·박경우,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 학연구』 9, 2009, 435~463쪽.
- 오상이, 「문화 대비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독일어의 호칭과 경어형태」, 『독일어문학』 13, 2005, 243~262쪽.
- 오세영·이현,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식문화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5, 2004, 556~565쪽.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이 땅의 토박이!』, 서울: 신원문화사, 1983.
- 이근후,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조사」, 『이화의대지』 18, 1995, 383~389쪽.
- 이부영, 「현대 한국인의 성격」, 『정신문화』 15, 1982, 75~86쪽.
- 이영의, 「한국인의 대표 감성으로서의 한(恨)의 구조」, 『호남학』 49, 2011, 149~185쪽.
- 이재근, 「미국 남장로회 여성 선교사 로티 벨(Lottie W. Bell)의 한국 및 한국인 초기 인식: 1895-1897년 선교 편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13, 2025, 259~283쪽.
- 이케하라 마모루,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 서울: 랜덤하우스, 1999.
- 이현종·박지민, 「한류의 세계적 부상과 미래 지속가능성: ‘국뽕’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콘텐츠와산업』 7, 2025, 425~431쪽.
- Jang, Songhyon & Coyner, Thomas L., 『Doing Business in Korea』, 서울: 서울셀렉션, 2010.
- 잭 런던(저), 윤미기(역),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중군기』, 파주: 한울출판사, 2011.
- 정태연,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2010, 53~76쪽.
- 조궁호,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2007, 21~53쪽.
- 조현범, 『문명과 야만: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서울: 책세상, 2002.
-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 주영하,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2018.
- 차재호·정지원,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 1993, 150~163쪽.

채서일, 『Doing Business with Koreans』, 고양: 옥당, 2012.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心情心理):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개념」, 『성국논총』 31, 2000, 479~514쪽.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1.

최원재, 「디지털 데이터 시대의 연구·교육 방안: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모닝캄》 시네틱 데이터 큐레이션」, 『한국학논집』 88, 2022, 129~190쪽.

최원재, 『조선의 빅데이터, 송남잡지를 찾아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의 마지막 백과전서』, 괴산군: 문화잇다, 2025.

최혜연·최종안, 「한국인의 정서 구조와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 2016, 89~114쪽.

프레데릭 볼레스텍스(저), 이향·김정연(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서울: 청년사, 2001.

하티제 피르울루 튀르피쥬, 「튀르키예 ‘인연’ 정서의 거울, 코레잔(Korecan)」, 당 티에우 응언 외, 『아시아가 말하는 K컬처 한류학』, 괴산군: 정한책방, 2026.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김진형, 「한국인의 마음지도 I: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2012, 435~464쪽.

허재홍, 「눈치가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5, 2014, 1067~1084쪽.

허재홍·오충광, 「눈치와 개인의 문화성향,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5, 2018, 341~364쪽.

현재환, 「“한민족의 뿌리”를 말하는 의사들: 의학 유전학과 한국인 기원론, 1975-1987」, 『의사학』 28, 2019, 551~589쪽.

황병기, 「일상에서 읽는 한국인의 정체성」, 『국학연구』 24, 2014, 429~466쪽.

3. 기타

「설 명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 1위는?」, 《경향신문》, 2017년 1월 24일.

「원숭이 이미지에 성형 조롱 … 한국·동남아 네티즌들 ‘혐오 전면전」, 《YTN》, 2026년 2월 20일.

「하루 14시간 공부」韓 교육열, 허 내두른 외국인 “나라면 못 해”」, 《르테스크》, 2024년 9월 5일.

「학업 역량, 유전자로 정해진다... 아시아인 17만 명 연구」, 《조선일보》, 2024년 1월 8일.

「한국사회 발전을 앞당긴 한국인의 특징」, 《KF 뉴스레터》 Vol. 36(2006.11).

「한국인과 유대인」, 《중앙일보》, 1971년 2월 18일.

강원택,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_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동아시아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10.

근대 전환기 알렌 문서 정리·해제 및 DB화,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aks.aks.ac.kr/rsh/dir/rwork_view.aspx?rshID=AKS-2016-KFR-1230009.

김열규, 「한국인의 ‘원형’ 찾아 학문뱃길 삼십년: “한국민속과 문학연구”부터 “한국신화와 무속연구”까지」, 《출판저널》 231(1998년 3월).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징, <https://blog.naver.com/empl/222545730034>.

팩츠 앤드 디테일즈, <https://factsanddetails.com>.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The Morning Calm, No. 200~229.

2. Books and Journal Articles

- Bang, Mingyu, "A Study on Korean Peoples' Origin Based on Biological Anthropology," *The Human Society*, Vol. 21, 2018, pp. 1211-1226.
- Breen, Michael, Kim, Kiman(trans.), *The Koreans: Who They Are, What They Want, Where Their Future Lies*, Seoul: Hongik Publishing, 1999.
- Cha, Jaeho & Cheong, Jeewon, "Collectivism in Modern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7, 1993, pp. 150-163.
- Chaib, Seoil, *Doing Business with Koreans*, Goyang: Okdag, 2012.
- Cho, Geungho, "The Confucian Origin of the East Asian Collectivism,"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1, 2007, pp. 21-53.
- Cho, Hyunbum, *Civilization and Savagery: 19th-Century Joseon through the Gaze of the Other*, Seoul: Chaeksesang, 2002.
- Cho, Hyunbum, *Missionaries of Joseon, Joseon of Missionaries*, Seoul: Research Foundation for Korean Church History, 2015.
- Choi, Haeyoun & Choi, Jongan, "The structure and measurement of Koreans' emo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30, 2016, pp. 89-114.
- Choi, Sangchin, "Shimjeong Psychology of Koreans: Core Concepts for Understanding the Korean Mind," *Sungkok Journal*, Vol. 31, 2000, pp. 479-514.
- Choi, Sangchin, *The Psychology of Koreans*, Seoul: Hakjisa, 2011.
- Choi, Wonjae, "Research and Education Plans in the Digital Data Era: Digital Data Narrative-『Morning Calm』 Semantic Data Curation,"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Vol. 88, 2022, pp. 129-190.
- Choi, Wonjae, *Joseon's Big Data, Searching for Songnam Japji*, Goesan: Munhwaitda, 2025.
- Choi, Wonjae, Dang Thieu Ngan, Nguyen Thi Ha, B. Dulmaa, Hatice Koroglu Turkozu, Parit Yinsen, Tomoomi Mori, *K-Culture Hallyu Studies as Spoken by Asia*, Goesan: Junghan Books, 2026.
- Frédéric Boulesteix, *D'un Orient autrement extrême: Images françaises de la Corée (XIIIe-XXe siècle)*, Seoul: Chungnyunsa, 2001.
- Grebst, W. A:son, Kim Sangyol(trans.), *I Korea: Minnen och studier från "Morgonstillhetens land"*, Seoul: Books for Berea, 2005.
- Han, Min, Choi, Incheol, Kim, Beomjun, Lee, Hoonjin, and Kim, Jinhyung, "Korean Mind Map I: Emotions, Thinking style, and Valu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1, 2012, pp. 435-464.
- Heo, Jaehong & Oh, Chungkwang, "The Relation between Nunchi and Individual's Cultural Orient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25, 2018, pp. 341-364.
- Heo, Jaehong, "The effects of nunchi on SWB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2014, pp. 1067-1084.

- Hwang, Byungki, "Reading Korean Identity in Daily Life," *Korean Studies*, Vol. 24, 2014, pp. 429-466.
- Hyun, Jaehwan, "Doctors Telling about 'the Root of Koreans': Medical Genetics and the Korean Origins,"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edicine*, Vol. 28, 2019, pp. 551-589.
- Ikehara, Mamoru, *Criticism of Korea and Koreans Written Prepared to be Beaten to Death*, Seoul: Random House, 1999.
- Jang, Songhyon & Coyner, Thomas L., *Doing Business in Korea: an expanded guide*, Seoul: Seoul Selection, 2010.
- Joo, Youngha, *Why Do Koreans Eat Like This?: A Cultural History of Food in Korea Investigated through the Dining Custom*, Seoul: Humanist, 2018.
- Jung, Taeyoun, "Historical and Cultural Analyses of Collective Features of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Psychology*, Vol. 24, No. 3, 2010, pp. 53-76.
- Kang, Myoungsook, "The Presentation System of Curriculum and the Transition of Elementary Curriculu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istory of Education*, Vol. 20, 2010, pp. 1-24.
- Kang, Wontaek, "South Koreans' National and Ethnic Identities: 15 Years of Change," East Asia Institute, 2020.
- Kim Uichol & Park Youngshin, "Conception of Self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2, 2006, pp. 1-36.
- Kim, Daehyun, "Discussion of 'The Korean Personality' by Educational Psychologist Yoon Tae-rim's and The Light and Shadow of American Psycho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210, 2025, pp. 457-495.
- Kim, Geunbae, "Becoming Medical Doctors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the Faculty of Medical Colleges in Early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Vol. 23, 2014, pp. 429-468.
- Kim, Yeojin, "The Formation of 'futei-senjin' (disorderly Koreans) Discourse in Japanese Newspapers Surrounding the 1919 March First Movement,"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34, 2020, pp. 143-178.
- Kim, Yunsung, "Protestant Medical Missions and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Frameworks for Perceiving the Body during the Open Port Perio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 Ko, Younggun & Kim, Jinyoung, "Emotional Wisdom of the Korean: Sakhim of Han," *Korean Studies Quarterly*, Vol. 28, 2005, pp. 255-290.
- Kwon, Chanyoung, "Comparative Study of Hwa-Byung of Generation M and Generation Z in South Korea,"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35, 2024, pp. 399-411.
- Lee, Hyunjong & Park, Jimin, "The Global Rise of the Korean Wave and Its Future Sustainability: A Critical Analysis of the 'Gugppong' Discourse," *Contents and Industry*, Vol. 7, 2025, pp. 425-431.
- Lee, Jaekeun, "Early Perceptions of Korea and Koreans by American Southern Presbyterian Female Missionary Lottie W. Bell: Focusing on Missionary Letters from 1895 to 1897," *The Dong-Bang Hak-Chi*, Vol. 213, 2025, pp. 259-283.
- Lee, Kyutae,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Koreans, Native of This Land*, Vol. 3, Seoul: Shinwon Munhwasa, 1983.
- London, Jack, Yoon Miki(trans.), *Jack London's reports from Korea, 1904 Russo-Japanese War*

- Dispatches*, Paju: Hanul Publishing, 2011.
- 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The Far East, The Faith and Life of the Korean people as Recorded by Catholic Missionaries*, Paju: Sallim Publishing Company, 2017.
- O, Sangyi, "Address and Politeness Forms in Korean and German: From a Cultural Contrastive Perspective," *The Journal of Germanic Literary Research*, Vol. 13, 2005, pp. 243-262.
- Oh, Seyoung & Lee Heon, "A thought on Korea food culture and colle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Vol. 19, No. 5, 2004, pp. 556-565.
- Park, Yoon, Shim, Hyeongin, and Lee, Sookjong,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cale Development of Korea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jeong-jeok (Warm-heart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20, 2014, pp. 415-441.
- Rhee, Kunhoo, "A Study on the Social Character of Koreans," *Ewha Medical Journal*, Vol. 18, 1995, pp. 383-389.
- Rhee, Younguei, "The Structure of Han as a Typical Type of Korean Emotion," *Journal of Honam Area Studies*, Vol. 49, 2011, pp. 149-185.
- Ryu, Daeyoung, *Earl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1884-1910)*, Seoul: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2010.
- Ryu, Daeyoung, *Protestant Christianity in Modern Korean History*, Seoul: Purunyoksa, 2009.
- Yeo, Eunho & Park, Kyeongwoo, "An Exploratory Study on Korean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Speaking," *Th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9, 2009, pp. 435-463.
- Yi, Booyoung, "The Personality of Modern Korean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5, 1982, pp. 75-86.

3. Other Sources

- "Characteristics of Koreans as Seen by Foreigners," Naver Blog, <https://blog.naver.com/empl/222545730034>.
- "Characteristics of Koreans That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KF Newsletter*, Vol. 36, November 2006, <https://kf.or.kr/kfNewsletter/mgzinSubViewPage.do?mgzinSn=66&mgzinSubSn=2722&langTy=KOR>.
- Facts and Details, <https://factsanddetails.com>.
- Health Chosun*, "Academic Ability Is Determined by Genes... Study of 170,000 Asians," January 8, 2024,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10802167.
- JoongAng Ilbo*, "Koreans and Jews," February 18, 1971,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78776>.
- Kim, Yeolgyu. "Thirty Years of Scholarly Voyage in Search of the 'Archetype' of Koreans: From Studies on Korean Folklore and Literature to Studies on Korean Mythology and Shamanism," *Publication Journal*, No. 231 (1998), pp. 22-23,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199844948390077>.
- KyungHyang Shinmun*, "What Is the No. 1 'Taboo Question' to Avoid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 January 24, 2017, <https://www.khan.co.kr/article/201701240926001>.
- Le Desk*. "Shake Their Voices at South Korea's '14 Hours of Studying a Day' Education Fierce: 'I Couldn't Do It,'" September 5, 2024, <https://www.ledesk.co.kr/view.php?uid=10417>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rganization, Annotation, and Database Construction of the Allen Documents from the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Korea,"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Results Portal, http://waks.aks.ac.kr/rsh/dir/rwork_view.aspx?rshID=AKS-2016-KFR-1230009.